

“어린이 포교 해외 사찰까지 하자”

동련 정기총회 및 대한불교교사대학 입학·졸업식 개최

어린이불자 양성에 앞장서 온 동련(이사장 심산·홍법사 주지)이 2010년 다양한 어린이 포교사업을 펼친다.

동련은 3월 6일 대한불교교사대학에서 ‘2010년 정기총회’를 열어 2009년 사업실적을 돌아보는 한편, 2010년 사업계획 및 운영방향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사장 심산 스님은 “2009년에는 어린이 포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및 산하단체의 활동이 두드러졌다”며 “전국 지구별 어린이 행사 지원의 확대, 권역별 연수를 통한 지도자 역량 강화, 어린이포교 종합컨텐츠 개발 등을 통해 종단과 불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 냈다”고 평가했다.

이에 동련은 올해에는 해외 어린이포교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등 어린이 지역포교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동련은 2010년 사업계획으로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 관련 산하기관 등 사업 기반 마련 △동자승 출가, 마을상차, 특성화 캠프, 어린이



대한불교교사대학장 정여 스님으로부터 졸업생 대표 무관 스님(부산 보림사이) 졸업장을 수여했다.

포교 교구 개발과 컨텐츠 개발 어린이 지도자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시행 △연꽃문화제, 언어예술제, 전통놀이 한마당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련은 ‘찾아가는 어린이 법당’을 월간<연꽃>을 구독하는 해외 사찰까지 확대·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기총회 후에는 조계종 특

수교육기관 제1호인 동련 산하 대한불교교사대학(학장 정여·범어사 주지)의 제11기 졸업식 및 제12기 입학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48명의 졸업생과 45명의 입학생이 불법홍포를 서원했다. 이날 행사는 경과보고, 시상식, 입학생 발원문 낭독 및 선사, 졸업생

축하공연 등의 행사가 2시간 여 진행됐다. 졸업생 대부분은 조계종포교원장 상 등 표창장과 함께 불교어린이지도사 연수원 2급, 페크리에이션 2급, 아트풍선 2급 등 어린이포교 지도를 위한 전문 자격증을 취득했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하는 성적우

수자 해외연수비 지원제도로 제10기 졸업생 김형식(전남·광주지역 청일점 지도교사)의 장학금 3명이 60만원씩 24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정여 스님은 “어린이포교는 곧 미래의 불교를 비추는 거울이기에 맑고 청정한 부처님의 마음으로 어린이들을 기르는데 힘을 보태어 달라”고 당부했다.

심산 스님도 “포교 일선에서 열정적으로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없다면 우리 불교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현 스님(부산 관음사 주지), 덕진 스님(울산 정토사 주지), 대한불교교사대학장 정여 스님을 비롯한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한편, 동련은 제3회 불교어린이지도사 연수를 3월 27~28일 양일간 충남 공주시 마곡사 인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개최한다. 키즈부터 홈페이지(www.kidsbuddha.org), (051)852-0852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불국토를 찾아서 해운대 참선명상도량 시선원

바르게 보기 위해선 자기비움이 필수

“절에 오래 다녔다는 불자들이 절에 자기를 비우는 것보다는 자칫 자기생각이나 야상을 강화시키는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스스로 속는 거지요. 공부를 통해서 스스로의 생각과 업을 바르게 보고 비울 때 비로소 제대로 된 불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원경(법명 우현) 법사는 바르게 비울 수 있는 마음공부를 여러 도반들과 함께 수행하기

><육조단경> 등 대승경전 강의를 통해 근본부터 차근차근 짚어나간다. 여기에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MBSR(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명상요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 주말을 제외한 매일 오후 2~5시에 자율 참선 명상 교실을 상설 운영해 누구든 몸과 마음을 비우며 마음공부에 임할 수 있다. 특히,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진행되는 외국인들을 위한 영



가운데 대법 스님, 오른쪽 조원경(법명 우현) 법사.

위해 참선명상도량 시선원방인 ‘시선원’을 열었다. 그는 비어있음을 통한 깨어있음, 즉 참된 나를 바르게 보기 위해 다양한 수행법 가운데 명상과 참선수행을 선택했다. 반신반의하며 시선원을 찾아온 불자들도 어느새 쉽고 명쾌한 공부의 매력에 빠져 들었다.

“불교경전은 보는 사람의 안목에 따라 깊이가 달라집니다. 같은 사물도 보는 방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듯이 자기 생각이 나 논리, 지식이 개인되면 바르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자기비움이 필수적이요, 즉 비어있음을 통한 깨어있음이 이를 때 비로소 진리가 드러나니까요.”

우현 법사는 쓸데없는 시비심을 경계할 것을 강조했다. 시비분별을 초월하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는데, 도량에서 까지 시비를 따진다면 결코 공부가 될 리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선원의 수행프로그램이 알차고 다양해 시비심이 생길 겨를이 없다. 공부 도중 사견에 떨어지지 않도록 <금강경

어법회는 입소문을 타 마음공부에 관심 있는 외국인 불자들이 찾고 있다. 지난 2월 2일 시선원 창립법회 때 봉행된 대법 스님(대천 계몽선 무상사 조실) 초청 법회에는 70여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참석하는 등 열기가 뜨거웠다.

흔히 공부라고 하면 물랐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지만, 시선원의 마음공부는 내려놓고, 비우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부나 수행의 부담감으로 생기는 스트레스를 받을 염려도 없다. 그 대신 수업을 마치고 도량을 나서면 몸과 마음이 한결 가볍고 맑아짐을 느낄 수 있다.

우현 법사는 “흔히 불교와 마음공부는 어렵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사실 아주 쉽고 우리 삶 가까이에 있다. 마음은 보통 자기 생각이거나 욕구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너머에 있는 본래의 맑고 청정한 마음을 이해하면 우리 삶은 항상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051)746-7611

박지원 기자

수행 통한 행복찾기 큰스님 릴레이법회

부산 여려사 불교대학(학장 원범)은 도심 속 현대인들을 위한 ‘수행을 통한 행복 찾기’를 주제로 큰스님 초청 릴레이법회를 봉행한다.

릴레이법회에는 3월 8일 정여 스님(범어사 주지)을 시작으로 △22일 수진 스님(前 해인사 강주) △4월 5일 목종 스님(대광명사 주지) △19일 원범 스님 △5월 3일 대성 스님(前 범어사 주지, 김해 은하사 회주)이 차례로 법문 할 계획이다.

원범 스님은 “가정과 사회, 자신의 참된 행복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갖고 스님들의 법문을 듣는다면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051) 466-4080 박지원 기자

‘차마고도와 삶의 예술’

4월 10일 흥법사, 경내 대웅보전서 개최



KBS 차마고도의 한장면. 김무관 PD는 흥법사에서 차마고도를 찍으며 느낀 삶의 철학을 강연할 예정이다.

흥법사(주지 심산)는 4월 10일 오후 7시 경내 대웅보전에서 KBS 다큐멘터리 ‘차마고도’ 책임프로듀서 김무관 PD를 초청해 ‘차마고도와 삶의 예술’이란 주제로 대중 공개 특강을 개최한다.

이날 강의에서 김무관PD는 △중국의 차문화 △티베트 언어 문명 등을 차마고도 제작과정을

통해 강의한다. 심산 스님은 “이번 특강을 계기로 불자들이 해외 불교문화에 대한 폭넓은 인목을 가졌으면 한다”며 “일반 언론의 눈으로 바라본 불교적 프로그램인 만큼, 힘들게 제작한 노고에 박수와 격려를 보내자”고 말했다. (051)508-0345 박지원 기자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춘성 관장, 부산시사회복지관협회장 당선



제12대 부산광역시사회복지관 협회장으로 이춘성 옹호총합사회복지관장이 선출됐다.

이춘성 선임회장은 “52개 소속 사회복지관장님들과 협의를 통해 모든 사안을 이끌어가는 것이 협회장의 역할인 만큼, 회원들의 단합을 이끌어내어 협회는 물론 각 기관, 나아가 부산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 회장은 부산지역 불교사회복지제 인사 중 최초의 협회장으로 당선됐다. 이와 관련해 이 회장은 “이웃종교의 경우 길게는 100년, 짧게는 한국전쟁 이후인 60여 년 이상을 사회참여를 통해 자리매김했다. 반면, 불교사회복지계가 공식적인 제

도권에 들어선 지는 불과 17년 밖에 되지 않는다”며 불교복지계의 활성화를 당부했다.

이 회장은 “부산지역 복지기관 중 불교계는 5%에 불과한 것이 현실인 만큼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불교계는 여전히 노인복지에 치중하고 있다. 현재는 다문화시대인데 아직 연계사업이 미비해 시대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 회장은 향후 임기 내 사업계획으로 △각 사회복지기관의 인지도 확대를 통한 위상 정립 △봉사자와 후원자를 위한 격려 및 포상제도 시행 △정신문화 서비스의 개발 등에 주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취임식은 3월 30일 오후 3시 부산시문화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지원 기자

마지막 소장 기회!

동일보감을 넘어서는 또 하나의 大역사(役事)!!

益生養術

의 생 양 술

우리 주변에 산재하는 수많은 신도들이 약초·약재들의 생태와 약리적 특성, 이를 활용한 20,000가지 전통 민간요법을 엄선하고 검증 정제 및 현대적 실용화를 꾀해 종진대생 함으로써 고금의 가장 위대한 의술과 양생법을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게 한 우리시대에 이루어낸 또 하나의 기념비적 위업(偉業)!!

‘향후 누가 있어 평생을 오롯이 바쳐도 이룰지 못할 이 지난(至難)한 작업을 해 내겠는가!’

“...이 책은 국내 최초의 제대로 된 방대한 본초학 교과서이자 한의사들이 토종 약초를 이용해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귀중한 유산을 담고 있는, 무병장수를 향한 수천년 지혜와 연구노력의 집약판...”
-염종화(전 대한한의학협회장)-

“...놀라운 역작(力作)이다. 우리의 선조는 예로부터 평생 연구한 비법을 넘겨, 후계자 한사람에게만 전수하다 보니 대부분 문서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이에 한 약초연구가의 평생의 집념과 각고 그리고 사명감이 마침내 대업을 이루었으니 능히 현대만 동일보감이라 할만하다...”
-안경환(전 경희대 약학대학 교수, 식약청 생약 자문위원)-

“...명약이란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믿는 미몽과 편견이 안타깝다...”
-발간사 중에서-

— 구성 —

- ◆ 1권 [약초 편] 1,000여 종 약용동식물의 생태 및 특징, 약효, 채취기간, 취급요령, 성미, 독성여부, 사용법, 사용범위, 사용방법, 적용종 등을 총괄 정리 수록했으며, 전래 민간요법의 효능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본초학 지식을 집약시킨 효용도 높은 도감으로 꾸며져, 각권과 연계되어 활용되도록 편집.
- ◆ 2권[상·하] [처방 편] 888종 질병의 원인 및 증상에 따른 20,000여 가지 처방, 치료 처방법을 상세히 설명, 스스로 진단해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치료방법을 활용하도록 했으며, 전문가는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워 익힐 수 있도록 대중성 및 실용성의 극대화를 꾀함.
- ◆ 3권 [조제 편] 1권에 수록된 각종 약용동식물을 활용한 500여 종류의 단방·혼합 주침(약술)요법, 270여 종류 탕전요법, 100여 종류 약차요법, 약재 및 먹거리를 이용한 1,000여 종류 식이요법 등 저자만의 비법 및 비전(秘傳)조제술, 자가진단법 총 집대성.

아래 발송관리처로 전화하시면 우송해 드리고 대금은 수령 후 송금(신용카드 가능)하시면 됩니다.

◆ 학술편수관 T · 02-2618-0700, 070-8811-5775 F · 032)348-1240